

제14차 NEAR 총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스크랩

2023.10.26.(목)

번호	구분	매체명	제목	비고
1	신문	경안일보	제14차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총회 개최… 역대 최대 규모	
2	신문	세명일보	울산서 제14차 동북아자치연합 ‘NEAR’ 총회 개막	
3	신문	연합뉴스	동북아 자치단체연합 총회 울산서 개최…5개국 52개 단체 참여	
4	신문	경북매일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총회 개최	
5	인터넷	위키톨리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총회 울산에서 개최	
6	인터넷	미디어투데이	경북도, 제14차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총회 개최	
7	인터넷	세계타임즈	제14차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총회 개최	
8	인터넷	CBN뉴스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제14차 총회 개최	
9	인터넷	경안일보	제14차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총회 개최… 역대 최대 규모	
10	인터넷	경인투데이뉴스	경북도, 제14차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총회 개최	
11	통신사	서울뉴스통신	제14차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총회 개최	



제14차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 총회 개최... 역대 최대 규모 (NEAR)

5개 회원국 52개 회원단체 66명의 국장급 이상 고위급 인사 참석

중국 간쑤성(80번째)과 러시아 알타이공화국(81번째) 신규 회원단체 가입

2개 분과위 창설... 디지털경제 분과위와 에너지협력 분과위 신설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NEAR)은 24일부터 26일까지 5개 회원국(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의 52개 광역지방정부 대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의 미래, 새롭게 함께하는 동북아!'라는 슬로건으로 '제14차 NEAR 총회'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UECO) 및 울산시 일원에서 개최했다.

2018년 중국 후난성 총회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 총회가 개최된 후 5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회의가 재개됐다. 주요 일정은 10월 25일 △NEAR (부)단체장 회견, △개회식, △총회(제1세션, 제2세션), △울산선언, △태화호 탐승, 10월 26일 △산업시찰(현대자동차), △현지시찰(테화강국가정원) 등이다.

먼저 NEAR (부)단체장 회견에서는 부단체장 이상 고위급 인사 18명과 국장급 인사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담과 더불어 동북아 지방 협력에 대한 의지를 다졌으며, 다음 총회부터는 NEAR 단체장 회의를 별도로 마련하는 등 동북아 지방정부의 정상급 회의 채널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개회식에서는 울산시장인 김두겸 NEAR 의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가 있었으며,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차기 의장단체인 진귀웨이 중국 랴오닝성 부

성장, 아롱에르텐 몽골 불강아이막 지사, 장민 중국 허난성 부성장, 무힌 브세볼로드 러시아 부랴티아공화국 제1부총리가 각각 축사를 하였고, 하야시리카 일본 도야마현 생활환경문화부 이사가 일본 도야마현 지사 축사를 대독했다.

또한 반기문 前 UN사무총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영상축사와 중국 산시성 자오강 성장이 축하 서한을 보내와 개회식을 더욱 빛냈다.

김두겸 NEAR 의장은 환영사에서 "지금은 국가간 교류와 함께 동북아 지방정부간 협력의 틀을 다지기 위한 상호협력과 이해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이번 제14차 NEAR 총회를 회원단체 간 정책과 경험을 교류하는 새로운 화합의 장으로 만들자"라고 말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축사에서 "경상북도는 1996년 초대 NEAR 의장을 시작으로, 2005년 NEAR 사무국을 경상북도 포항시에 유치하고 운영비를 매년 지원하는 등 NEAR가 지향하는 다자교류 협력 모델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제14차 NEAR 총회가 경제,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총회 제1세션에서는 제13차 실무위원회 결과와 NEAR 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하였으며, 의제 심의 및 의결에서는 신규회원단체 가입(중국 간쑤성, 러시아 알타이공화국) 및 분과위원회 신설(중국 랴오닝성 디지털경제분과위원회, 중국 네이멍구자치구 에너지협력분과위원회)을 의결하고, 중국 랴오닝성을 향후 2년간 NEAR를 이끌어갈 의장단체로 선출했다.

총회 제2세션에서는 일본 시마네현에서 교육문화교류 분과위원회와 일본 도야마현에서 환경 분과위원회 활동을 보고하였으며, 중국 산시성과 세종특별자치시, 몽골 흠드아이막, 러시아 톰스크주에서는 회원단체 발표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울산선언에서는 NEAR 지사·성장 회의 개최, 양자 혹은 다자간 다양한 형태의 지방정부간 협력 강화, 역내 신뢰와 협력 구축, 분과위원회 활성화 등 앞으로 동북아 지역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힘을 함께 모으기로 하였다.

이밖에도 NEAR 사무국 주선으로 이번 제14차 NEAR 총회에서 울산시와 중국 허난성, 경상북도와 중국 랴오닝성이 우호교류 의향서를 각각 체결하고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증진키로 했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이번 제14차 NEAR 총회는 52개 단체(현장

39, 온라인 13)가 참여하고, 부단체장 이상 고위급 참석인사 22명(현장 18, 온라인 4), 국장급 참석자 34명(현장 30, 온라인 4) 등 총 66명에 이르는 등 참여단체와 고위급 인사 참석 면에서 규모와 질적으로 역대 최대 규모 총회"라고 평가했다.

또한 "중국 간쑤성(80번째)과 러시아 알타이공화국(81번째)이 신규 회원단체로 가입하고, 중국 랴오닝성이 디지털경제 분과위원회, 중국 네이멍구자치구가 에너지협력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NEAR의 외연 확대와 운영 활성화에도 큰 성과가 있었던 행사"라며 "무엇보다 동북아 역대 중앙정부 간 갈등 상황 속에서도 많은 회원단체가 총회에 참석하여 동북아의 번영과 교류 협력을 위한 연대와 지지를 함께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지방정부 간 다자간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플랫폼으로, 1996년 9월 경주시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출범하였고 2005년 경상북도가 상설 사무국을 유치하여 포항시에 소재하고 있다.

김두겸 기자 ga7799@gailbo.com



제14회 NEAR 총회 (경북도 제공)

울산서 제14차 동북아자치연합 'NEAR' 총회 개막

역대 최대 규모 52개 회원단체 66명 국장급 이상 고위급 인사 참석

中 간쑤성(80번째)·러시아 알타이 공화국(81번째) 신규 회원단체 가입

2개 분과위 창설, 디지털 경제 분과위와 에너지 협력 분과위도 신설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이 지난 24~26일까지 5개 회원국(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의 52개 광역지방 정부 대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의 미래, 새롭게 함께하는 동북아'라는 슬로건으로 '제14차 NEAR 총회'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UECO) 및 울산시 일원에서 개최했다.

2018년 중국 후난성 총회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 총회가 개최된 후 5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회의가 재개됐다. 주요 일정은 25일 ▲NEAR (부)단체장 회견 ▲개회식 ▲총회(제1세션, 제2세션) ▲울산선언 ▲태화호 탐승, 26일 ▲산업시찰(현대자동차) ▲현지시찰(태화강국가정원) 등이다.

먼저 NEAR (부)단체장 회견에서는 부단체장 이상 고위급 인사 18명과 국장급 인사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담과 더불어 동북아 지방 협력에 대한 의지를 다졌으며, 다음 총회부터는 NEAR 단체장 회의를 별도로 마련하는 등 동북아 지방정부의 정상급 회의 채널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개회식에서는 울산시장인 김두겸 NEAR 의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가 있었으며,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차기 의장단체인 진귀웨이 중국 랴오닝성 부성장, 아룡에르덴 몽골 불강아이막 지사, 장민 중국 허난성 부성장, 무힌 브세볼로드 러시아 부랴티야공화국 제1부총리가 각각 축사를 했고, 하야시 리카 일본 도야마현 생활환경문화부 이사가 일본 도야마현 지사 축사를 대독했다.

또한 반기문 前 UN사무총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영상축사와 중국 찐시성 자오강 성장이 축하 서한을 보내와

개회식을 더욱 빛냈다.

김두겸 NEAR 의장은 환영사에서 "지금은 국가간 교류와 함께 동북아 지방정부간 협력의 틀을 다지기 위한 상호협력과 이해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이번 제14차 NEAR 총회를 회원단체 간 정책과 경험을 교류하는 새로운 화합의 장으로 만들자"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축사에서 "경북도는 1996년 초대 NEAR 의장을 시작으로, 2005년 NEAR 사무국을 경북도 포항시에 유치하고 운영비를 매년 지원하는 등 NEAR가 지향하는 다자교류 협력 모델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제14차 NEAR 총회가 경제,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총회 제1세션에서는 제13차 실무위원회 결과와 NEAR 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했으며, 의제 심의 및 의결에서는 신규회원단체 가입(중국 간쑤성, 러시아 알타이공화국) 및 분과위원회 신설(중국 랴오닝성 디지털경제분과위원회, 중국 네이멍구자치구 에너지협력분과위원회)을 의결하고, 중국 랴오닝성을 향후 2년간 NEAR를 이끌어갈 의장단체로 선출했다.

총회 제2세션에서는 일본 시마네현에서 교육문화교류 분과위원회와 일본 도야마현에서 환경 분과위원회 활동을 보고했으며, 중국 산시성과 세종특별자치시, 몽골 흄다아이막, 러시아 톰스크주에서는 회원단체 발표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울산선언에서는 NEAR 지사·성장 회의 개최, 양자 혹은 다자간 다양한 형태의 지방정부간 협력 강화, 역내 신뢰와 협력 구축, 분과위원회 활

성화 등 앞으로 동북아 지역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힘을 함께 모으기로 했다.

이 밖에도 NEAR 사무국 주선으로 이번 제14차 NEAR 총회에서 울산시와 중국 허난성, 경북도와 중국 랴오닝성이 우호교류 의향서를 각각 체결하고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증진키로 했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이번 제14차 NEAR 총회는 52개 단체(현장 39, 온라인 13)가 참여하고, 부단체장 이상 고위급 참석인사 22명(현장 18, 온라인 4), 국장급 참석자 34명(현장 30, 온라인 4) 등 총 66명에 이르는 등 참여단체와 고위급 인사 참석 면에서 규모와 질적으로 역대 최대 규모 총회"라고 평가했다.

또한 "중국 간쑤성(80번째)과 러시아 알타이공화국(81번째)이 신규 회원단체로 가입하고, 중국 랴오닝성이 디지털경제 분과위원회, 중국 네이멍구자치구가 에너지협력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NEAR의 외연 확대와 운영 활성화에도 큰 성과가 있었던 행사"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동북아 역내 중앙정부 간 갈등 상황 속에서도 많은 회원단체가 총회에 참석하여 동북아의 번영과 교류 협력을 위한 연대와 지지를 함께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 6개 국 79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해 지방정부 간 다자간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플랫폼으로, 1996년 9월 경주시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해 출범했고 2005년 경북도가 상설 사무국을 유치해 포항시에 소재하고 있다.

황보문옥 기자

동북아 자치단체연합 총회 울산서 개최...5개국 52개 단체 참여

송고시간 | 2023-10-25 15:44

| 5년 만의 대면 행사, 온라인 동시 진행..."울산 브랜드 위상 제고"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총회 개막

(울산=연합뉴스) 25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4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총회 개막식에서 김 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3.10.25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km@yna.co.kr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25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14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총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등으로 5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이번 총회는 5개국 52개 회원단체에서 1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다.

특히 이철우 경북도지사, 진귀웨이 중국 랴오닝성 부성장, 장민 중국 허난성 부성장, 포템킨 바실리 러시아 톰스크주 부지사 등 고위 인사가 대거 참석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총회가 개최됐다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총회는 개회식, NEAR 사무국 업무보고, 분과위원회 활동 보고, 차기 의장단체 선출, 울산선언 선포 등 순으로 열렸다.

총회와 별도로 울산시는 '중화 문명의 발상지'인 중국 허난성과 교류협력의향서(LOI)를 체결,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총회 후 참석자들은 울산신항 컨테이너부두로 이동해 스마트 선박 '태화호' 승선 체험을 했다.

26일에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태화강 국가정원 등을 시찰한다.

NEAR은 동북아시아 지역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증진과 공동 발전을 위해 1996년 9월 4개국 29개 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창설했다.

지금은 한국 16개, 중국 12개, 일본 11개 등 총 6개국 79개 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1년 제13차 총회에서 제14대 의장단체로 선정된 울산시는 이번 총회를 끝으로 중국 랴오닝성에 의장단체를 물려주고 임기를 마치게 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총회 개최로 국제적 도시로서 울산의 브랜드 위상을 제고하고, 경제·통상·교육·과학·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과 동반 성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총회 개막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k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10/25 15:44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총회 개최

✎ 이창훈기자 Ⓞ 승인 2023.10.25 16:04



이철우 경북지사는 25일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의 15대 의장국으로 확정된 랴오닝성과 우호 교류 의향서를 체결하고 지방 외교 활성화를 모색했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은 25일 5개 회원국(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의 52개 광역지방정부 대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의 미래, 새롭게 함께하는 동북아!’라는 슬로건으로 ‘제14차 NEAR 총회’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개최했다.

2018년 중국 후난성 총회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 총회가 개최된 후 5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회의가 재개됐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축사에서 “경상북도는 1996년 초대 NEAR 의장을 시작으로, 2005년 NEAR 사무국을 경상북도 포항시에 유치하고 운영비를 매년 지원하는 등 NEAR가 지향하는 다자교류 협력 모델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제14차 NEAR 총회가 경제,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NEAR (부)단체장 회견에서는 동북아 지방 협력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다음 총회부터는 NEAR 단체장 회의를 별도로 마련하는 등 동북아 지방정부의 정상급 회의 채널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총회 제1세션에서는 신규회원단체 가입(중국 간쑤성, 러시아 알타이공화국) 및 분과위원회 신설(중국 랴오닝성 디지털경제분과위원회, 중국 네이멍구자치구 에너지협력분과위원회)을 의결하고, 중국 랴오닝성을 향후 2년간 NEAR를 이끌어갈 의장단체로 선출했다.

울산선언에서는 NEAR 지사·성장 회의 개최, 양자 혹은 다자간 다양한 형태의 지방정부간 협력 강화, 역내 신뢰와 협력 구축, 분과위원회 활성화 등 앞으로 동북아 지역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힘을 함께 모으기로 했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해 지방정부 간 다자간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플랫폼으로, 1996년 9월 경주시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해 출범 2005년 경상북도가 상설 사무국을 유치해 포항시에 소재하고 있다.

경북도 이철우지사는 이날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의 15대 의장국으로 확정된 랴오닝성과 우호 교류 의향서를 체결하고 지방 외교 활성화는 물론 한·중 간 호혜 관계 발전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진귀웨이 부성장은 “15대 NEAR 의장국이 되는 뜻깊은 자리에서 경북도와 우호 교류 의향서를 체결해 매우 기쁘다”며 “오늘 의향서 체결은 랴오닝성과 경상북도 간 교류의 장을 여는 것으로 앞으로 더욱 소통해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숙한 교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철우 지사는 “지난 2019년 경북도의회와 랴오닝성인민대표대회 간 교류의향서 체결에 이어 오늘 경북도와 랴오닝성이 우호 교류 의향서를 체결해 교류의 초석을 다졌다”며 “경북도는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 강화를 통해 양 국가, 더 나아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총회 울산에서 개최

2023-10-25 14:43 이창형 기자

역대 최대 규모 52개 회원단체 66명의 국장급 이상 고위급 인사 참석

중국 간쑤성(80번째)과 러시아 알타이공화국(81번째) 신규 회원단체 가입

2개 분과위 창설... 디지털경제 분과위와 에너지협력 분과위 신설



제14차 NEAR 총회 기념촬영/이하 NEAR

[경북=위키트리]이창형 기자=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은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5개 회원국(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의 52개 광역지방정부 대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의 미래, 새롭게 함께하는 동북아'라는 슬로건으로 「제14차 NEAR 총회」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UECO) 및 울산시 일원에서 개최하고 있다.

2018년 중국 후난성 총회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 총회가 개최된 후 5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회의가 재개했다.

주요 일정은 10월 25일 △NEAR (부)단체장 회견, △개회식, △총회(제1세션, 제2세션), △울산선언, △태화호 탐승, 10월26일△산업시찰(현대자동차), △현지시찰(태화강국가정원) 등이다.

먼저 NEAR (부)단체장 회견에서는 부단체장 이상 고위급 인사 18명과 국장급 인사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담과 더불어 동북아 지방 협력에 대한 의지를 다졌으며, 다음 총회부터는 NEAR 단체장 회의를 별도로 마련하는 등 동북아 지방정부의 정상급 회의 채널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축사

개회식에서는 울산시장인 김두겸 NEAR 의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가 있었으며,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차기 의장단체인 진귀웨이 중국 랴오닝성 부성장, 아룽에르덴 몽골 불강 아이막 지사, 장민 중국 허난성 부성장, 무힌 브세볼로드 러시아 부랴티야공화국 제1부총리가 각각 축사를 했고, 하야시 리카 일본 도야마현 생활환경문화부 이사가 일본 도야마현 지사 축사를 대독했다. 또한 반기문 전 UN사무총장과 박형준 부산시장도 영상축사와 중국 쑤시성 자오강 성장이 축하 서한을 보내왔다.

김두겸 NEAR 의장은 환영사에서 “지금은 국가간 교류와 함께 동북아 지방정부간 협력의 틀을 다지기 위한 상호협력과 이해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이번 제14차 NEAR 총회를 회원단체 간 정책과 경험을 교류하는 새로운 화합의 장으로 만들자”라고 말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축사에서 “경상북도는 1996년 초대 NEAR 의장을 시작으로, 2005년 NEAR 사무국을 경상북도 포항시에 유치하고 운영비를 매년 지원하는 등 NEAR가 지향하는 다자교류 협력 모델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제14차 NEAR 총회가 경제,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축사

총회 제1세션에서는 제13차 실무위원회 결과와 NEAR 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했으며, 의제 심의 및 의결에서는 신규회원단체 가입(중국 간쑤성, 러시아 알타이공화국) 및 분과위원회 신설(중국 랴오닝성 디지털경제분과위원회, 중국 네이멍구자치구 에너지협력분과위원회)을 의결하고, 중국 랴오닝성을 향후 2년간 NEAR를 이끌어갈 의장단체로 선출했다.

총회 제2세션에서는 일본 시마네현에서 교육문화교류 분과위원회와 일본 도야마현에서 환경 분과위원회 활동을 보고했으며, 중국 산시성과 세종특별자치시, 몽골 홉드아이막, 러시아 톰스크주에서는 회원단체 발표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울산선언에서는 NEAR 지사·성장 회의 개최, 양자 혹은 다자간 다양한 형태의 지방정부간 협력 강화, 역내 신뢰와 협력 구축, 분과위원회 활성화 등 앞으로 동북아 지역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힘을 함께 모으기로 했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이번 제14차 NEAR 총회는 52개 단체(현장 39, 온라인 13)가 참여하고, 부단체장 이상 고위급 참석인사 22명(현장 18, 온라인 4), 국장급 참석자 34명(현장 30, 온라인 4) 등 총 66명에 이르는 등 참여단체와 고위급 인사 참석 면에서 규모와 질적으로 역대 최대 규모 총회"라고 평가하고 "동북

아 역내 중앙정부 간 갈등 상황 속에서도 많은 회원단체가 총회에 참석해 동북아의 번영과 교류 협력을 위한 연대와 지지를 함께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해 지방정부 간 다자간 국제 교류를 추진하는 플랫폼으로, 1996년 9월 경주시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출범했고 2005년 경상북도가 상설 사무국을 유치해 포항시에 소재하고 있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총회** **#경북도**

위키템리는 뉴스 스토리텔링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으며, (주)소셜뉴스는 이 글에 대한 재배포 권한을 갖습니다.

© Social News Co., Ltd. All Right Reserved.

경북도, 제14차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총회 개최

역대 최대 규모 52개 회원단체 66명의 국장급 이상 고위급 인사 참석

기사입력시간 : 2023/10/25 [09:59:00]

안상일 기자



▲ 경상북도청

[미디어투데이=안상일 기자] 경북도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이 2023년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5개 회원국(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의 52개 광역지방정부 대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의 미래, 새롭게 함께하는 동북아!'라는 슬로건으로 '제14차 NEAR 총회'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UECO) 및 울산시 일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8년 중국 후난성 총회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 총회가 개최된 후 5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회의가 재개됐다. 주요 일정은 10월 25일 △NEAR (부)단체장 회견, △개회식, △총회(제1세션, 제2세션), △울산선언, △태화호 탐승, 10월26일△산업시찰(현대자동차), △현지시찰(태화강국가정원) 등이다.

먼저 NEAR (부)단체장 회견에서는 부단체장 이상 고위급 인사 18명과 국장급 인사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담과 더불어 동북아 지방 협력에 대한 의지를 다졌으며, 다음 총회부터는 NEAR 단체장 회의를 별도로 마련하는 등 동북아 지방정부의 정상급 회의 채널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개회식에서는 울산시장인 김두겸 NEAR 의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가 있었으며,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차기 의장단체인 진귀웨이 중국 랴오닝성 부성장, 아룽에르덴 몽골 불강아이막 지사, 장민 중국 허난성 부성장, 무힌 브세볼로드 러시아 부랴티야공화국 제1부총리가 각각 축사를 했고, 하야시리카 일본 도야마현 생활환경문화부 이사가 일본 도야마현 지사 축사를 대독했다. 또한 반기문 前 UN사무총장과 박형준 부산시장도 영상축사와 중국 쑤시성 자오강 성장이 축하 서한을 보내와 개회식을 더욱 빛냈다.

김두겸 NEAR 의장은 환영사에서 “지금은 국가간 교류와 함께 동북아 지방정부간 협력의 틀을 다지기 위한 상호협력과 이해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이번 제14차 NEAR 총회를 회원단체 간 정책과 경험을 교류하는 새로운 화합의 장으로 만들자”라고 말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축사에서 “경상북도는 1996년 초대 NEAR 의장을 시작으로, 2005년 NEAR 사무국을 경상북도 포항시에 유치하고 운영비를 매년 지원하는 등 NEAR가 지향하는 다자교류 협력 모델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제14차 NEAR 총회가 경제,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총회 제1세션에서는 제13차 실무위원회 결과와 NEAR 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했으며, 의제 심의 및 의결에서는 신규회원단체 가입(중국 간쑤성, 러시아 알타이공화국) 및 분과위원회 신설(중국 랴오닝성 디지털경제분과위원회, 중국 네이멍구자치구 에너지협력분과위원회)을 의결하고, 중국 랴오닝성을 향후 2년간 NEAR를 이끌어갈 의장단체로 선출했다.

총회 제2세션에서는 일본 시마네현에서 교육문화교류 분과위원회와 일본 도야마현에서 환경 분과위원회 활동을 보고했으며, 중국 산시성과 세종특별자치시, 몽골 홉드아이막, 러시아 톰스크주에서는 회원단체 발표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울산선언에서는 NEAR 지사·성장 회의 개최, 양자 혹은 다자간 다양한 형태의 지방정부간 협력 강화, 역내 신뢰와 협력 구축, 분과위원회 활성화 등 앞으로 동북아 지역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힘을 함께 모으기로 했다.

이밖에도 NEAR 사무국 주선으로 이번 제14차 NEAR 총회에서 울산시와 중국 허난성, 경상북도와 중국 랴오닝성이 우호교류 의향서를 각각 체결하고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증진키로 했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이번 제14차 NEAR 총회는 52개 단체(현장 39, 온라인 13)가 참여하고, 부단체장 이상 고위급 참석인사 22명(현장 18, 온라인 4), 국장급 참석자 34명(현장 30, 온라인 4) 등 총 66명에 이르는 등 참여단체와 고위급 인사 참석 면에서 규모와 질적으로 역대 최대 규모 총회”라고 평가했다.

“또한 중국 간쑤성(80번째)과 러시아 알타이공화국(81번째)이 신규 회원단체로 가입하고, 중국 랴오닝성이 디지털경제 분과위원회, 중국 네이멍구자치구가 에너지협력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NEAR의 외연 확대와 운영 활성화에도 큰 성과가 있었던 행사”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동북아 역내 중앙정부 간 갈등 상황 속에서도 많은 회원단체가 총회에 참석하여 동북아의 번영과 교류 협력을 위한 연대와 지지를 함께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지방정부 간 다자간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플랫폼으로, 1996년 9월 경주시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출범했고 2005년 경상북도가 상설 사무국을 유치하여 포항시에 소재하고 있다.



HOME > 세계로컬핫뉴스 > 경북

제14차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총회 개최

한성국 / 기사작성 : 2023-10-25 08:44:02

- 역대 최대 규모 52개 회원단체 66명의 국장급 이상 고위급 인사 참석
- 중국 간쑤성(80번째)과 러시아 알타이공화국(81번째) 신규 회원단체 가입
- 2개 분과위 창설... 디지털경제 분과위와 에너지협력 분과위 신설

[경북 세계타임즈=한성국 기자]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은 2023년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5개 회원국(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의 52개 광역지방정부 대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의 미래, 새롭게 함께하는 동북아!'라는 슬로건으로 「제14차 NEAR 총회」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UECO) 및 울산시 일원에서 개최하였다.





2018년 중국 후난성 총회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 총회가 개최된 후 5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회의가 재개되었다. 주요 일정은 10월 25일 △NEAR (부)단체장 회견, △개회식, △총회(제1세션, 제2세션), △울산선언, △태화호 탐승, 10월26일△산업시찰(현대자동차), △현지시찰(태화강국가정원) 등이다.

먼저 NEAR (부)단체장 회견에서는 부단체장 이상 고위급 인사 18명과 국장급 인사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담과 더불어 동북아 지방 협력에 대한 의지를 다졌으며, 다음 총회부터는 NEAR 단체장 회의를 별도로 마련하는 등 동북아 지방정부의 정상급 회의 채널로 정례화하기로 하였다.

개회식에서는 울산시장인 김두겸 NEAR 의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가 있었으며,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차기 의장단체인 진귀웨이 중국 랴오닝성 부성장, 아룽에르덴 몽골 불강아이막 지사, 장민 중국 허난성 부성장, 무힌 브세볼로드 러시아 부랴티야공화국 제1부총리가 각각 축사를 하였고, 하야시 리카 일본 도야마현 생활환경문화부 이사가 일본 도야마현 지사 축사를 대독하였다. 또한 반기문 前 UN사무총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의 영상축사와 중국 쑤시성 자오강 성장이 축하 서한을 보내와 개회식을 더욱 빛냈다.

김두겸 NEAR 의장은 환영사에서 “지금은 국가간 교류와 함께 동북아 지방정부간 협력의 틀을 다지기 위한 상호협력과 이해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이번 제14차 NEAR 총회를 회원단체 간 정책과 경험을 교류하는 새로운 화합의 장으로 만들자”라고 말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축사에서 “경상북도는 1996년 초대 NEAR 의장을 시작으로, 2005년 NEAR 사무국을 경상북도 포항시에 유치하고 운영비를 매년 지원하는 등 NEAR가 지향하는 다자교류 협력 모델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제14차 NEAR 총회가 경제,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총회 제1세션에서는 제13차 실무위원회 결과와 NEAR 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하였으며, 의제 심의 및 의결에서는 신규회원단체 가입(중국 간쑤성, 러시아 알타이공화국) 및 분과위원회 신설(중국 랴오닝성 디지털경제분과위원회, 중국 네이멍구자치구 에너지협력분과위원회)을 의결하고, 중국 랴오닝성을 향후 2년간 NEAR를 이끌어갈 의장단체로 선출하였다.

총회 제2세션에서는 일본 시마네현에서 교육문화교류 분과위원회와 일본 도야마현에서 환경

분과위원회 활동을 보고하였으며, 중국 산시성과 세종특별자치시, 몽골 홉드아이막, 러시아 톰스크주에서는 회원단체 발표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울산선언에서는 NEAR 지사·성장 회의 개최, 양자 혹은 다자간 다양한 형태의 지방정부간 협력 강화, 역내 신뢰와 협력 구축, 분과위원회 활성화 등 앞으로 동북아 지역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힘을 함께 모으기로 하였다.

이밖에도 NEAR 사무국 주선으로 이번 제14차 NEAR 총회에서 울산시와 중국 허난성, 경상북도와 중국 랴오닝성이 우호교류 의향서를 각각 체결하고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증진키로 하였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이번 제14차 NEAR 총회는 52개 단체(현장 39, 온라인 13)가 참여하고, 부단체장 이상 고위급 참석인사 22명(현장 18, 온라인 4), 국장급 참석자 34명(현장 30, 온라인 4) 등 총 66명에 이르는 등 참여단체와 고위급 인사 참석 면에서 규모와 질적으로 역대 최대 규모 총회”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중국 간쑤성(80번째)과 러시아 알타이공화국(81번째)이 신규 회원단체로 가입하고, 중국 랴오닝성이 디지털경제 분과위원회, 중국 네이멍구자치구가 에너지협력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NEAR의 외연 확대와 운영 활성화에도 큰 성과가 있었던 행사”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동북아 역내 중앙정부 간 갈등 상황 속에서도 많은 회원단체가 총회에 참석하여 동북아의 번영과 교류 협력을 위한 연대와 지지를 함께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지방정부 간 다자간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플랫폼으로, 1996년 9월 경주시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출범하였고 2005년 경상북도가 상설 사무국을 유치하여 포항시에 소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세계타임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http://www.thesegeye.com>]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제14차 총회 개최

- 역대 최대 규모 52개 회원단체 66명의 국장급 이상 고위급 인사 참석 - - 중국 간쑤성(80번째)과 러시아 알타이공화국(81번째) 신규 회원단체 가입 - - 2개 분과위 창설... 디지털경제 분과위와 에너지협력 분과위 신설 -

2023년 10월 25일 [cbn뉴스]



© cbn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은 24일부터 26일까지 5개 회원국(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의 52개 광역지방정부 대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의 미래, 새롭게 함께하는 동북아!'라는 슬로건으로 '제14차 NEAR 총회'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UECO) 및 울산시 일원에서 개최했다.

2018년 중국 후난성 총회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 총회가 개최된 후 5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회의가 재개되었다. 주요 일정은 10월 25일 △NEAR (부)단체장 회견, △개회식, △총회(제1세션, 제2세션), △울산선언, △태화호 탐승, 10월26일△산업시찰(현대자동차), △현지시찰(태화강국가정원) 등이다.

먼저 NEAR (부)단체장 회견에서는 부단체장 이상 고위급 인사 18명과 국장급 인사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담과 더불어 동북아 지방 협력에 대한 의지를 다졌으며, 다음 총회부터는 NEAR 단체장 회의를 별도로 마련하는 등 동북아 지방정부의 정상급 회의 채널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개회식에서는 울산시장인 김두겸 NEAR 의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가 있었으며,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차기 의장단체인 진귀웨이 중국 랴오닝성 부성장, 아룡에르덴 몽골 불강아이막 지사, 장민 중국 허난성 부성장, 무힌 브세볼로드 러시아 부랴티야공화국 제1부총리가 각각 축사를 했고, 하야시 리카 일본 도야마현 생활환경문화부 이사가 일본 도야마현 지사 축사를 대독했다. 또한 반기문 前 UN사무총장과 박형준 부산시장도 영상축사와 중국 쑤시성 자오강 성장이 축하 서한을 보내와 개회식을 더욱 빛냈다.

김두겸 NEAR 의장은 환영사에서 "지금은 국가간 교류와 함께 동북아 지방정부간 협력의 틀을 다지기 위한 상호협력과 이해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이번 제14차 NEAR 총회를 회원단체 간 정책과 경험을 교류하는 새로운 화합의 장으로 만들자"라고 말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축사에서 "경상북도는 1996년 초대 NEAR 의장을 시작으로, 2005년 NEAR

사무국을 경상북도 포항시에 유치하고 운영비를 매년 지원하는 등 NEAR가 지향하는 다자교류 협력 모델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제14차 NEAR 총회가 경제,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총회 제1세션에서는 제13차 실무위원회 결과와 NEAR 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하였으며, 의제 심의 및 의결에서는 신규회원단체 가입(중국 간쑤성, 러시아 알타이공화국) 및 분과위원회 신설(중국 랴오닝성 디지털경제분과위원회, 중국 네이멍구자치구 에너지협력분과위원회)을 의결하고, 중국 랴오닝성을 향후 2년간 NEAR를 이끌어갈 의장단체로 선출하였다.

총회 제2세션에서는 일본 시마네현에서 교육문화교류 분과위원회와 일본 도야마현에서 환경 분과위원회 활동을 보고하였으며, 중국 산시성과 세종특별자치시, 몽골 홉드아이막, 러시아 톰스크주에서는 회원단체 발표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울산선언에서는 NEAR 지사·성장 회의 개최, 양자 혹은 다자간 다양한 형태의 지방정부간 협력 강화, 역내 신뢰와 협력 구축, 분과위원회 활성화 등 앞으로 동북아 지역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힘을 함께 모으기로 했다.

이밖에도 NEAR 사무국 주선으로 이번 제14차 NEAR 총회에서 울산시와 중국 허난성, 경상북도와 중국 랴오닝성이 우호교류 의향서를 각각 체결하고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증진키로 했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이번 제14차 NEAR 총회는 52개 단체(현장 39, 온라인 13)가 참여하고, 부단체장 이상 고위급 참석인사 22명(현장 18, 온라인 4), 국장급 참석자 34명(현장 30, 온라인 4) 등 총 66명에 이르는 등 참여단체와 고위급 인사 참석 면에서 규모와 질적으로 역대 최대 규모 총회"라고 평가했다.

"또한 중국 간쑤성(80번째)과 러시아 알타이공화국(81번째)이 신규 회원단체로 가입하고, 중국 랴오닝성이 디지털경제 분과위원회, 중국 네이멍구자치구가 에너지협력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NEAR의 외연 확대와 운영 활성화에도 큰 성과가 있었던 행사"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동북아 역내 중앙정부 간 갈등 상황 속에서도 많은 회원단체가 총회에 참석하여 동북아의 번영과 교류 협력을 위한 연대와 지지를 함께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지방정부 간 다자간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플랫폼으로, 1996년 9월 경주시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출범하였고 2005년 경상북도가 상설 사무국을 유치하여 포항시에 소재하고 있다.

이재영 기자 youngl5566@naver.com

- Copyrights ©cbn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bn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cbn뉴스

제14차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총회 개최... 역대 최대 규모

✎ 김구동 기자 ㉠ 승인 2023.10.25 21:02

**5개 회원국 52개 회원단체 66명의 국장급 이상 고위급 인사 참석
중국 간쑤성(80번째)과 러시아 알타이공화국(81번째) 신규 회원단체 가입
2개 분과위 창설... 디지털경제 분과위와 에너지협력 분과위 신설**



[경안일보=김구동기자]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은 24일부터 26일까지 5개 회원국(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의 52개 광역지방정부 대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의 미래, 새롭게 함께하는 동북아!’라는 슬로건으로 ‘제14차 NEAR 총회’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UECO) 및 울산시 일원에서 개최했다.

2018년 중국 후난성 총회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 총회가 개최된 후 5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회의가 재개됐다. 주요 일정은 10월 25일 △NEAR (부)단체장 회견, △개회식, △총회(제1세션, 제2세션), △울산선언, △태화호 탐승, 10월 26일△산업시찰(현대자동차), △현지시찰(태화강국가정원) 등이다.

먼저 NEAR (부)단체장 회견에서는 부단체장 이상 고위급 인사 18명과 국장급 인사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데 환담과 더불어 동북아 지방 협력에 대한 의지를 다졌으며, 다음 총회부터는 NEAR 단체장 회의를 별도로 마련하는 등 동북아 지방정부의 정상급 회의 채널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개회식에서는 울산시장인 김두겸 NEAR 의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가 있었으며,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차기 의장단체인 진귀웨이 중국 랴오닝성 부성장, 아룽에르덴 몽골 불강아이막 지사, 장민 중국 허난성 부성장, 무힌 브세볼로드 러시아 부랴티야공화국 제1부총리가 각각 축사를 하였고, 하야시 리카 일본 도야마현 생활환경문화부 이사가 일본 도야마현 지사 축사를 대독했다.

또한 반기문 前 UN사무총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의 영상축사와 중국 산시성 자오강 성장이 축하 서한을 보내와 개회식을 더욱 빛냈다.

김두겸 NEAR 의장은 환영사에서 “지금은 국가간 교류와 함께 동북아 지방정부간 협력의 틀을 다지기 위한 상호협력과 이해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이번 제14차 NEAR 총회를 회원단체 간 정책과 경험을 교류하는 새로운 화합의 장으로 만들자”라고 말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축사에서 “경상북도는 1996년 초대 NEAR 의장을 시작으로, 2005년 NEAR 사무국을 경상북도 포항시에 유치하고 운영비를 매년 지원하는 등 NEAR가 지향하는 다자교류 협력 모델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제14차 NEAR 총회가 경제,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총회 제1세션에서는 제13차 실무위원회 결과와 NEAR 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하였으며, 의제 심의 및 의결에서는 신규회원단체 가입(중국 간쑤성, 러시아 알타이공화국) 및 분과위원회 신설(중국 랴오닝성 디지털경제분과위원회, 중국 네이멍구자치구 에너지협력분과위원회)을 의결하고, 중국 랴오닝성을 향후 2년간 NEAR를 이끌어갈 의장단체로 선출했다.

총회 제2세션에서는 일본 시마네현에서 교육문화교류 분과위원회와 일본 도야마현에서 환경 분과위원회 활동을 보고하였으며, 중국 산시성과 세종특별자치시, 몽골 홉드아이막, 러시아 톰스크주에서는 회원단체 발표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울산선언에서는 NEAR 지사·성장 회의 개최, 양자 혹은 다자간 다양한 형태의 지방정부간 협력 강화, 역내 신뢰와 협력 구축, 분과위원회 활성화 등 앞으로 동북아 지역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힘을 함께 모으기로 하였다.

이밖에도 NEAR 사무국 주선으로 이번 제14차 NEAR 총회에서 울산시와 중국 허난성, 경상북도와 중국 랴오닝성이 우호교류 의향서를 각각 체결하고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증진키로 했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이번 제14차 NEAR 총회는 52개 단체(현장 39, 온라인 13)가 참여하고, 부단체장 이상 고위급 참석인사 22명(현장 18, 온라인 4), 국장급 참석자 34명(현장 30, 온라인 4) 등 총 66명에 이르는 등 참여단체와 고위급 인사 참석 면에서 규모와 질적으로 역대 최대 규모 총회”라고 평가했다.

또한 “중국 간쑤성(80번째)과 러시아 알타이공화국(81번째)이 신규 회원단체로 가입하고, 중국 랴오닝성이 디지털경제 분과위원회, 중국 네이멍구자치구가 에너지협력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NEAR의 외연 확대와 운영 활성화에도 큰 성과가 있었던 행사”라며 “무엇보다 동북아 역내 중앙정부 간 갈등 상

항 속에서도 많은 회원단체가 총회에 참석하여 동북아의 번영과 교류 협력을 위한 연대와 지지를 함께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지방정부 간 다자간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플랫폼으로, 1996년 9월 경주시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출범하였고 2005년 경상북도가 상설 사무국을 유치하여 포항시에 소재하고 있다.

김구동 기자 ga7799@gailbo.com



김구동 기자 ga7799@naver.com

경북도, 제14차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총회 개최

역대 최대 규모 52개 회원단체 66명의 국장급 이상 고위급 인사 참석

기사입력시간 : 2023/10/25 [09:59:00]

박경태 기자



▲ 경상북도청

[경인투데이뉴스=박경태 기자] 경북도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이 2023년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5개 회원국(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의 52개 광역지방정부 대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의 미래, 새롭게 함께하는 동북아!'라는 슬로건으로 '제14차 NEAR 총회'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UECO) 및 울산시 일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8년 중국 후난성 총회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 총회가 개최된 후 5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회의가 재개됐다. 주요 일정은 10월 25일 △NEAR (부)단체장 회견, △개회식, △총회(제1세션, 제2세션), △울산선언, △태화호 탐승, 10월26일△산업시찰(현대자동차), △현지시찰(태화강국가정원) 등이다.

먼저 NEAR (부)단체장 회견에서는 부단체장 이상 고위급 인사 18명과 국장급 인사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담

과 더불어 동북아 지방 협력에 대한 의지를 다졌으며, 다음 총회부터는 NEAR 단체장 회의를 별도로 마련하는 등 동북아 지방정부의 정상급 회의 채널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개회식에서는 울산시장인 김두겸 NEAR 의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가 있었으며,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차기 의장단체인 진귀웨이 중국 랴오닝성 부성장, 아룽에르덴 몽골 불강아이막 지사, 장민 중국 허난성 부성장, 무힌 브세볼로드 러시아 부랴티야공화국 제1부총리가 각각 축사를 했고, 하야시리카 일본 도야마현 생활환경문화부 이사가 일본 도야마현 지사 축사를 대독했다. 또한 반기문 前 UN사무총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의 영상축사와 중국 쑤시성 자오강 성장이 축하 서한을 보내와 개회식을 더욱 빛냈다.

김두겸 NEAR 의장은 환영사에서 “지금은 국가간 교류와 함께 동북아 지방정부간 협력의 틀을 다지기 위한 상호협력과 이해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이번 제14차 NEAR 총회를 회원단체 간 정책과 경험을 교류하는 새로운 화합의 장으로 만들자”라고 말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축사에서 “경상북도는 1996년 초대 NEAR 의장을 시작으로, 2005년 NEAR 사무국을 경상북도 포항시에 유치하고 운영비를 매년 지원하는 등 NEAR가 지향하는 다자교류 협력 모델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제14차 NEAR 총회가 경제,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총회 제1세션에서는 제13차 실무위원회 결과와 NEAR 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했으며, 의제 심의 및 의결에서는 신규회원단체 가입(중국 간쑤성, 러시아 알타이공화국) 및 분과위원회 신설(중국 랴오닝성 디지털경제분과위원회, 중국 네이멍구자치구 에너지협력분과위원회)을 의결하고, 중국 랴오닝성을 향후 2년간 NEAR를 이끌어갈 의장단체로 선출했다.

총회 제2세션에서는 일본 시마네현에서 교육문화교류 분과위원회와 일본 도야마현에서 환경 분과위원회 활동을 보고했으며, 중국 산시성과 세종특별자치시, 몽골 흙드아이막, 러시아 톰스크주에서는 회원단체 발표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울산선언에서는 NEAR 지사·성장 회의 개최, 양자 혹은 다자간 다양한 형태의 지방정부간 협력 강화, 역내 신뢰와 협력 구축, 분과위원회 활성화 등 앞으로 동북아 지역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힘을 함께 모으기로 했다.

이밖에도 NEAR 사무국 주선으로 이번 제14차 NEAR 총회에서 울산시와 중국 허난성, 경상북도와 중국 랴오닝성이 우호교류 의향서를 각각 체결하고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증진키로 했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이번 제14차 NEAR 총회는 52개 단체(현장 39, 온라인 13)가 참여하고, 부단체장 이상 고위급 참석인사 22명(현장 18, 온라인 4), 국장급 참석자 34명(현장 30, 온라인 4) 등 총 66명에 이르는 등 참여단체와 고위급 인사 참석 면에서 규모와 질적으로 역대 최대 규모 총회”라고 평가했다.

“또한 중국 간쑤성(80번째)과 러시아 알타이공화국(81번째)이 신규 회원단체로 가입하고, 중국 랴오닝성이 디지털경제 분과위원회, 중국 네이멍구자치구가 에너지협력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NEAR의 외연 확대와 운영 활성화에도 큰 성과가 있었던 행사”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동북아 역내 중앙정부 간 갈등 상황 속에서도 많은

회원단체가 총회에 참석하여 동북아의 번영과 교류 협력을 위한 연대와 지지를 함께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지방정부 간 다자간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플랫폼으로, 1996년 9월 경주시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출범했고 2005년 경상북도가 상설 사무국을 유치하여 포항시에 소재하고 있다.

제14차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총회 개최

✎ 박영기 ④ 승인 2023.10.25 09:07

52개 회원단체 66명의 국장급 이상 고위급 인사 참석

【서울 = 서울뉴스통신】 박영기 기자 =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은 24일부터 26일까지 5개 회원국(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의 52개 광역지방정부 대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의 미래, 새롭게 함께하는 동북아'라는 슬로건으로 '제14차 NEAR 총회'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UECO) 및 울산시 일원에서 개최하였다.

2018년 중국 후난성 총회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 총회가 개최된 후 5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회의가 재개되었다.

주요 일정은 25일 NEAR (부)단체장 회견, 개회식, 총회(제1세션, 제2세션), 울산선언, 태화호 탑승과 26일 산업시찰(현대자동차), 현지시찰(태화강국가정원) 등이다.

NEAR (부)단체장 회견에서는 부단체장 이상 고위급 인사 18명과 국장급 인사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담과 더불어 동북아 지방 협력에 대한 의지를 다졌으며, 다음 총회부터는 NEAR 단체장 회의를 별도로 마련하는 등 동북아 지방정부의 정상급 회의 채널로 정례화하기로 하였다.

개회식에서는 울산시장인 김두겸 NEAR 의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가 있었으며, 이철우 도지사와 차기 의장단체인 진귀웨이 중국 랴오닝성 부성장, 아룽에르덴 몽골 불강아이막 지사, 장민 중국 허난성 부성장, 무힌 브세볼로드 러시아 부랴티야공화국 제1부총리가 각각 축사를 하였고, 하야시 리카 일본 도야마현 생활환경문화부 이사가 일본 도야마현 지사 축사를 대독하였다.

반기문 전 UN사무총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의 영상축사와 중국 쑤시성 자오강 성장이 축하 서한을 보내와 개회식을 더욱 빛냈다.

김두겸 의장은 환영사에서 "지금은 국가간 교류와 함께 동북아 지방정부간 협력의 틀을 다지기 위한 상호협력과 이해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이번 제14차 NEAR 총회를 회원단체 간 정책과 경험을 교류하는 새로운 화합의 장으로 만들자"고 말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축사에서 “제14차 NEAR 총회가 경제,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총회 제1세션에서는 제13차 실무위원회 결과와 NEAR 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하였으며, 의제 심의 및 의결에서는 신규회원단체 가입(중국 간쑤성, 러시아 알타이공화국) 및 분과위원회 신설(중국 랴오닝성 디지털경제분과위원회, 중국 네이멍구자치구 에너지협력분과위원회)을 의결하고, 중국 랴오닝성을 향후 2년간 NEAR를 이끌어갈 의장단체로 선출하였다.

총회 제2세션에서는 일본 시마네현에서 교육문화교류 분과위원회와 일본 도야마현에서 환경 분과위원회 활동을 보고하였으며, 중국 산시성과 세종시, 몽골 홉드아이막, 러시아 톰스크주에서는 회원단체 발표시간을 가졌다.

울산선언에서는 NEAR 지사·성장 회의 개최, 양자 혹은 다자간 다양한 형태의 지방정부간 협력 강화, 역내 신뢰와 협력 구축, 분과위원회 활성화 등 앞으로 동북아 지역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힘을 함께 모으기로 하였다.

NEAR 사무국 주선으로 이번 제14차 NEAR 총회에서 울산시와 중국 허난성, 경북도와 중국 랴오닝성이 우호교류 의향서를 각각 체결하고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증진키로 하였다.

임병진 사무총장은 “이번 제14차 NEAR 총회는 52개 단체(현장 39, 온라인 13)가 참여하고, 부단체장 이상 고위급 참석인사 22명(현장 18, 온라인 4), 국장급 참석자 34명(현장 30, 온라인 4) 등 총 66명에 이르는 등 참여단체와 고위급 인사 참석 면에서 규모와 질적으로 역대 최대 규모 총회”이라고 평가하였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지방정부 간 다자간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플랫폼으로, 1996년 9월 경주시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출범하였고 2005년 경북도가 상설 사무국을 유치하여 포항시에 소재하고 있다.



박영기 pakryk2002@naver.com